

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은 9월 10일(월) 제2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낙농현안과 관련한 분과위차원의 활동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협회 이사회(8.30)에 의결에 따라 낙발대책, 한EU FTA문제를 비롯한 낙농현안과 관련한 협회 및 도(연합)지회 대응활동에 적극 동참기로 하는 한편 대정부 활동 및 성명, 논평 수시발표 등 낙농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농가 여론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청년지도자 발굴 및 도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도별 청년지도자 간담회를

추진기로 하였으며, 12월중 보고대회를 겸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낙농현안 여론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 전개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도대표를 도위원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하고, 도부위원장까지 청년분과위원회 임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년분과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협회 이사회 안건상정을 협회에 요청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회의에서는 '무항생제' 표기 문제, 무허가축사 양성화, 낙농후계자 육성책, 농지법 개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협회에 요청하였다. ☺

